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

Theology and Worldview
of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in Trial

강영안

1. 자유대학교의 설립 배경
2. 자유대학교의 기초가 된 “학문이론”
3. 계속된 내부적 결속
4. 전환기의 자유대학교
5. 자유대학교 “기초”를 에워싼 토론
6. 맺음말



강영안.

한국 외국어대 화란어과를 졸업하고, 벨기에 루뱅(Louvain)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칸트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강대 철학과(서양 근세철학 및 독일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쓴 책으로는 「도식과 상징, 칸트의 도식론에 관한 연구」(1985년, 영문)가 있고, 논문으로는 “레비나스 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1990), “셸링의 초기철학에서 자아와 철학”(1990), “셸링의 자연개념”(1990), “현대철학의 반데카르트적 경향”(1991), “레비나스의 인간존재론 소묘”(1991), “자크라캉: 언어와 욕망”(1991),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현대성”(1991), “존재 경험과 주체의 출현-레비나스의 존재론”(1991), “칸트의 근본 악과 자유”(1991), “악에 관한 형이상학적 성찰”(1992) 등이 있다. 한국 칸트철학회 총무이사, 「통합연구」지 편집위원, 기독교학문연구회 의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1. 자유대학교의 설립 배경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 Free University of Amsterdam)는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 니우브 케르크(Nieuwe Kerk)에서 설립자 아브라함 카이퍼(까의쁘르)(Abraham Kuyper)의, “각 영역에서의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란 개교 기념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자유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 시작했고 개교 112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여전히 기독교대학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변한 것은 단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방식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그렇듯, 대학도 시대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하기 마련이다. 자유대학교의 설립 자체도 당시의 화란 문화와 사회의 변동과 함께 가능했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사회와 문화 속에 대학의 기독교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해 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876년 화란 「고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된 것이 자유대학교의 직접적인 설립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는, 앞으로 신학대학을 대학에 설치하고자 할 때

* 제목을 심포지움의 전체 주제에 어울리게 “신학과 세계관”이라고 했지만 이 글은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글은 아니다. 이 글은 오히려 “신학과 세계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보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을 택한 것은 100년 전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은 지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보다 더 가까운 이유는, 대학의 신앙고백을 어떻게 작성했는가 하는 것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학문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대부분은 자유대학교가 100년간 이룬 학문적 업적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논집인 Wetenschap en Rekenschap 1880~1980. Een eeuw wetenschapsbeoefening en wetenschapsbeschouwing aan de Vrije Universiteit (Kampen: Kok, 1980)에 실려 있는 W. J. Wieringa, J. Klapwijk, J. Veenhof의 연구에 거의 의존하였다. 이 책의 서론으로 쓴 Wieringa의 글 제목은 “De vrije universiteit als bijzondere instelling 1880~1980”이다. Klapwijk와 Veenhof는 각각 철학과 신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교의신학과 직분과목(=실천신학)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신학은 사실상 종교학이 되었고, 신학 개념의 변화는 정통 신학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국교이었던 화란 개척과 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로 부터 정통 신학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왜냐하면 화란 개척과 교회는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이퍼는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교회가 사회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면 학문없이 불가능하고, 이 일은 신학교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카이퍼는 이미 1870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¹⁾ 그는 목사를 훈련하는 장소로 신학교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연구되고 교수되는 학문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삶과 어울리지 않을 때, 교회는 모든 학문분야를 담고 있는 종합대학을 독자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카이퍼는 주장하였다. 카이퍼는 국립대학²⁾ 외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사립대학”(bijzondere universiteit)을, 그것도 's Hertogenbosch에 카톨릭 대학을 그리고 우트레흐트에 프로테스탄트 대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대학을 세운다고 할 때 어떤 프로테스탄트 원리를 기초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카이퍼는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색깔을 규정함이 없이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 가운데 정통 신앙과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 설립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의 토대가 될 신학도 좀 느슨한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교회가 참여하더라

1) Abraham Kuyper, *Ons program*(1870) J. Stellingwerff, *Inleiding tot de universiteit* (Amsterdam: Buijten en Schipperheijn, 1871), 192~193 참조.

2) 그 당시 국립대학은 레이든, 호로닝은, 우트레흐트에 자리잡고 있었다.

3) 그러나 실제로는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가, 네이메이헌(Nijmegen)에 카톨릭 대학교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개정된 「고등교육법」 덕분에 가능하였다. 이 법은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1872년 자유대학교의 설립을 역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J. Roelink, *Vijfentwintig Jaar Vrije Universiteit*(Kampen:Kok, 1955) 48~49 참조.

도 그가 생각한 기독교대학은 어떤 경우든지 “자유”(자유로운) 대학이어야 했다. “자유”대학이란, 두 개의 기관 즉 정부와 교회로부터 아무런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대학이었다. 정부와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은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론을 통해 정당화된다. “영역 주권”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kring), 예컨대, 가정, 교회, 국가, 학교에 각각 고유한 법칙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학문 분야에서도 고유한 삶의 법칙을 가진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서로 독립해 있지만, 모든 영역은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가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란 아무 곳도 없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개교 연설에서 자유대학교의 존립 권리를 옹호하였다.⁴⁾

1880년 10월 20일 자유대학교가 문을 처음 열었을 때, 그것은 카이퍼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우선, 교파를 초월해서 정통신앙을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에 대해, 정통신앙을 내세우는 보수파와 느슨한 신앙노선을 견고자 한 자유주의, 그리고 부흥파(R veil)와 개혁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자유대학교는 칼빈주의 노선의 개혁주의 대학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1877년 몇몇 사람들이 모여 “개혁주의적”인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한다. 이때 그들이 이해한 “개혁주의적”(gereformeerd)이란 1619년 도르트레흐트(Dordrecht) 총회에서 결정한 신조를 그대로 따르는 교회를 뜻하였다.⁵⁾ 이들은

4) Abraham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Rede ter inwijding van de Vrije Universiteit den 20sten October 1880 gehouden in het koor der Nieuwe Kerk te Amsterdam (Kampen: Kok, 1930).

5) 여기서 “개혁주의적”(gereformeerd)란 용어는 교파와 관계된 것이기 보다 칼빈의 종교개혁과 도르트레흐트의 신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쓰인 것이다. Abraham Kuyper, 위의 글. 24~25 참조. J. Roelink, 앞의 책, 57~58 참조.

일년 후(1878) “개혁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협회”(De Vereeniging voor Hooger Onderwijs op Gereformeerden Grondslag)(이하 “개교협”으로 약칭)을 결성할 때까지 대학 정관을 만드느라 고심하였다. 대학 설립을 위한 연합회가 개혁신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이 없었다. 그리고 신학교육도 도르트레흐트 총회에서 채택한 세 신조(화란 신앙백, Confessio Belgica,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막상 문제가 된 것은, 대학에서 주어지는 모든 교육에 개혁주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신학의 경우와 달리, 다른 분야에 개혁주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은 지지받지 못하고, 모든 학문에 개혁주의 신앙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유대학교의 기본정신을 담은 정관 전문의 “기초조항”(grondslagartike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우리」 협회「개혁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협회」는 협회가 세운 학교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개혁신앙 원리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화란개교회(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en)가 1619년 도르트레흐트 전국총회에서 결정한대로 “세 신조”를 신학 교육의 기초로 인정한다.⁶⁾

정관이 만들어진 다음, 개교협은 전국에 있는 개혁주의 신자들에게 편지

6) 화란어 전문은 다음과 같다. “De Vereeniging staat voor alle onderwijs, dat aan haar scholen gegeven wordt, geheel en uitsluitend op den grondslag der gereformeerde beginselen, en erkent mitsdien als grondslag voor het onderwijs in de Godgeleerdheid de drie formulieren van Eenigheid, gelijk die in den jare 1619 door de Nationale Synode van Dordrecht van de Nederlandsche Gereformeerde Kerken zijn vastgesteld; een zoodanig gezag daaraan hechtende als genoemde Synode, blijkens haar eigen handelwijze en haar acten, aan de belijdenisschriften der Nederlandsche Gereformeerde Kerken heeft toegekend.”

를 돌린다. 대학 재정을 후원할 회원 모집이 그들의 시급한 과제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개교협은 대학 설립이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된, 순수한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는 심장 끝수까지 “개혁주의적”인 목사를 원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목사를 양육하기 위해 신학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자유대학교는 신학교는 아니었지만 신학은 처음부터 “학문의 여왕”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교협은 기독교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만일 기독교대학이 서지 않으면 사회와 문화의 상충부는 불신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학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역하는 도구가 되며, 정치인과 관리, 법관과 의사, 문학과 과학자들은 신앙의 원리에 등을 돌려서 자연주의의 사도가 될 것이며, 결국에는 영적 삶을 모두 죽이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유대학교를 통해 세속화의 흐름을 저지하고, 화란과 서구를 다시 기독교화(再基督教化)하며, 정통 신앙을 보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개교협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⁷⁾

1878년 개교협이 결성된 이후, 대학설립을 위해 이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개교협은 1879년 6월 7일 총회를 열어 대학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머지 않아 두 명의 교수를 임명할 것을 결정하였다. 재정이나 인력 사정으로 볼 때 “완전한” 대학(문과대학, 신과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을 포함한 종합대학)은 불가능했고, 우선 설립 목적과 어울리는 문과대학, 신과대학, 법과대학, 이 3개 대학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자유대학교는 교수 5명(그 중 3명은 신학교수이었고, 2명은 각각 문과대학과 법과대학 교수였다)과 학생 5명(모두 신과대학 학생이었다)으로 시작하였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시작이었다. 개교식에는 개교협 회원 뿐만 아니라 외무부 장관, 국회의원, 암스테르담 총장, 외국 손님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고

7) 자유대학교는 처음부터 서구 문화의 탈기독교화 현상을 막아보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교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Abraham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24 이하 참조.

개교 기념 행사는 사흘간 계속되었다. 개교식은 전통적인 대학 예식대로 진행되었고, 농부와 가정부인 등 대학을 전혀 모르는 대부분의 후원자들에게 생소한 예식이었다. 1955년 자유대학교의 역사를 쓴 롤링크(Roelink)는 장관과 농부, 시골 부인과 교수가 한 자리에 앉아 대학 개교식을 올린 것은 당시 상황으로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⁸⁾

2 자유대학교의 기초가 된 “학문이론”

자유대학교는 처음에, 앞에서 인용한 “기초”에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대학운영법」(1970)의 도입으로 “기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우리」협회는 자유대학교에서 수행되는 학문 연구와 교육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새로 개정된 “기초”는 초창기에 들어 있던 “개혁신앙 원리”와 화란 개혁교회의 “세 신조”가 빠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들어 가 있다. 이것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자유대학교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설립 직후부터 정관에 명시된 이 “기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되었다. 목사후보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개혁신앙 원리의 추종 여부를 졸업시험 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

8) J. Roelink, 위의 책, 66.

9) “De Vereniging staat voor alle arbeid die van haar uitgaat, met name voor het wetenschappelijk onderwijs en onderzoek dat aan de Vrije Universiteit plaats vindt, op de grondslag van het evangelie van Jezus Christus, dat naar de openbaring in de Heilige Schrift den mens in zijn gehele leven roept tot de dienst en verheerlijking van de ene God, Vader, Zoon en Heilige Geest, en daarin tot de dienst van de medemens.”

었다. 이와 관련해서, 학문(과학)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토론되었다. 이것은 “개혁주의 원리”와 학문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대학 설립 당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실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정신적인 지주였던 카이퍼도 학문이론(wetenschapsleer)을 개발할 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1893,94년 카이퍼는 비로소 학문의 본질, 학문과 신앙의 관계, 신학 원리와 신학 교과목의 분류, 신학 교과목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논의하는 신학요강(Encyclopaedia der heilige godgeleerdheid)(전 3권)이란 대작을 발표하였다. 그는 학문 수행에 결정적인 것은 거듭남(palingenese)이라고 보았다.¹⁰⁾ 거듭남은 “분리”를 가져온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감각적 지각 작용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지각 작용은 동일하며, 거듭남으로 논리적인 사고작용에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에는 동일한 논리가 작용한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학자의 일터(자연, 역사, 철학 등)는 동일하고 공통된 논리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신자와 불신자는 다같이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연구와 논변을 지배할 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과 새로 거듭난 사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고 “신앙적인 학문”과 “불신앙적인 학문”의 분리가 발생한다. 카이퍼의 “학문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과 학문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통찰이었다. 모든 학문은, 불신앙에 근거한 학문조차도, 모두 신앙(geloof)을 전제한다. 자아, 자기의식, 사고법칙의 올바른, 개별적 사건 속에서의 보편적인 것, 생명,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기본 원리에 대한 신앙이 늘 전제되어 있다. 생명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기본원리에 대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개입한다. 왜냐하면 원리를 통해 절대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학문의 유형이 생겨나고, 두 개의 전혀 다른 학문은 각각 그것의 신학(예컨대, 무신론, 범신론, 유신론)

10) Abraham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dl.2(Amsterdam: J. A. Wormser, 1894), 97이하(1부 3장).

과 세계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¹¹⁾

카이퍼는 자신의 “학문이론”을 통해 자유대학교에서의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교육에 분명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하나의 체계라기보다 기독교적 학문 수행의 가능성을 원리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적 학문 연구를 강조했지만, 불신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불신 학문에 대한 카이퍼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그는 “신앙적 학문”과 “불신앙적 학문”이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인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차이가 학문연구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학문에는 어느 정도의 중립성이 있고 원리와 관련해서 두 “유형”의 학문이 나누어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별이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카이퍼는 거듭남을 통해 수행된 이른바 “신앙적인 학문”도 연구자 모두에게 일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듭남에도 성격과 소질의 차이가 남아있고, 연구자가 살고 있는 환경과 시대가 학문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모두 일치할 수 있는 기독교적 학문을 수립할 수는 없다. 이것은 카이퍼의 뛰어난 현실감각을 보여 주는 측면이다.¹²⁾

카이퍼는 기독교적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큰 윤곽은 제시했지만, 개혁주의 원리 중 어떤 원리가 연구와 교육을 구체적으로 근거지울 원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당시 자유대학교에 관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원리가 곧 발견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1985년, 당시 법학교수였던 드 사보르닌 로만(A. F. de Savornin Lohman)과의

11) Abraham Kuyper, 위의 책, 71~93; 같은 이,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In october 1898 te Princeton(N.J.) gehouden (Amsterdam: hoeveker & Wormser), 124이하.

12) 카이퍼의 [학문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J. Klapwijk, “Abraham Kuyper over wetenschap en universiteit,” in: *Abraham Kuyper. Zijn volksdeel, zijn invloed* (Delft: Meinema), 61~94 참조.

갈등으로 이 문제는 긴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¹³⁾ 드 사보르닌 로만은 개혁주의적 원리를 법학 분야에서 충분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 갈등은 결국 그의 사표로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개혁주의 원리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개 조문의 기본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개혁주의는 칼빈 이후 화란에서 발전된 칼빈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그 이후 자유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교육은 모두 칼빈주의 원리와 전통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수들은 자신들이 모두 칼빈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다. 아울러 교수들은, 칼빈주의 원리를 어떻게 교육 일반과 개별 학문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같이 연구하기로 결의한다. 기독교적(개혁주의적) 원리는 어떤 학문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삶 전체와 삶의 각 부분을 조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성경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체계는 한꺼번에 수립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과 나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가 칼빈주의 원리를 기초로 수립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칼빈주의를 연구와 교육의 기본원리로 삼게 되자 자유대학교의 모습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밖으로부터는 고립을 뜻하고 안으로는 내적 통합을 가져왔다. 그 이후 자유대학교 안에서는 “개혁주의 원리” 혹은 “칼빈주의 원리”가 항상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자유대학과 교회와의 관계도 좁혀지고 말았다. 대학은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개교 당시부터 자유대학을 지배한 생각이었다. 목사 후보생을 양육하

13) 로만이 협의받은 내용은,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개혁주의와 반혁명당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 법학 연구에 반드시 개혁주의 원리를 모든 면에 다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이었다. 카이퍼와 로만의 갈등에 대해서는 J. Roelink, 앞의 책, 106~117 참조.

는 신과대학조차도 어떤 특정한 교회와 관련을 갖지 않았다. 1886년 개혁과 교회가 분열되어, 카이퍼가 주도하던 “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G.K.)가 형성되었을 때도 자유대학교는 이 교파와 공식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8년 신과대학은 새로 생긴 “개혁교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게되어, 자유대학교 신과대학은 이 교파가 세운 감뎀신학교와 함께 목사 후보생을 양육하는 곳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대학교는 화란 개혁교회(G.K.)와 동일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¹⁴⁾

3. 계속된 내부적 결속

카이퍼 사후(1920년) 약 10년간 자유대학교는 소강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수의 사람이 일하던 작은 대학이었고, 자유대학교의 중추 역할을 하던 신학도 카이퍼와 바빙크 이후 신통한 업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개혁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큰 논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닌 학문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해명도 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철학도 그때까지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30년을 전후로, 자유대학교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두 가지 있게 되었다. 하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과대학, 신과대학, 법과대학, 이 3개 단과대학 밖에 없었으나 1930년 네번째 단과대학이 덧붙여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범이념철학”(Wijsbegeerte der Wetsidee)으로 불리었던 칼빈주의 철학이 도여베이트(Dooyeweerd)와 폴른호븐(Vollenhoven)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체계화된 것이었다.

1930년, 단과대학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된 까닭은 정부의 학위 인가 조건 때문이었다. 자유대학교는 1880년 사립대학으로 인가할 때 학생들에게 학위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예컨대, 판사나 변호사 혹은 교사로서 사회

14) W. J. Wieringa, 앞의 글, 21~22 참조.

에 공직을 가질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은 국립대학에 가서 졸업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 이 권한(이른바 *effectus civilis*)은 1905년에 비로소 부여되었다. 그때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1930년까지 최소한 네 개의 단대를, 1950년까지는 5개의 단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교협은 처음부터 의과대학을 세우려고 했지만 재정과 인력 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 4의 단대로 “수학 및 자연과학대학”이 새로 설치되었다. 자연과학이 도입되면서, 대학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새로 취임한 교수는 교수취임 강연에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기독교대학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과 전혀 다른 과학을 연구할 수 없다. (2) 자연과학은 인문 사회과학과는 달리 직접 개혁주의 원리와 관계되는 정도가 약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의 기초와 결과에 대한 철학적, 세계관적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은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그의 강연 요지였다.¹⁵⁾

도여베르트와 폴른호른의 칼빈주의 철학은 이 당시 자유대학교 내의 체계적인 학문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처남 매부간인 두 사람은 1926년 교수가 되었다). 두 철학자의 등장으로, 카이퍼가 철학에 기대했던, 개혁주의 원리와 개별학문 간의 관계가 좀 더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었다.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철학은, 이론적 사유는 모두 어떤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고, 이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이것을 이른바 “이론적 사유의 초월적 비판”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 양상들은 각각 독자적인 법칙 영역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전체 세계와 상호 연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이것을 “양상론”이라고 부른다).¹⁶⁾ 나아가서, 가정과 국가, 사회 등의 상호 독립성과 구조적 연관성과 개별성 이론을 펼쳐주었다(이것

15) W. J. Wieringa, 앞의 글, 21~22 참조.

16) 도여베르트와 폴른호른 철학의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Klapwijk가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J. Klapwijk, “Honderd jaar filosofie aan de Vrije Universiteit,” in: *Wetenschap en Rekenschap*, 554~561 참조.

을 “개별성구조이론”이라고 부른다).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기독교 철학을 수강해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학문의 성격을 반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1940년 2차 대전의 발발로 자유대학교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더이상 발전없이 현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아직 규모가 작은 대학이었지만 화란 사회에서 학문연구 기관으로서의 자유대학교는 이미 일정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볼 때 자유대학교는 특수한 대학이었고, 당시 전체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대학교는 개혁교회(G.K.)와 연결된 기관이었고, 일반 화란인들의 눈에는 반혁명당(A.R.P.)과 관련된 대학으로 이해되었다. 사실, 자유대학교는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밖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보다 내적 통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외국과의 관계도 제한되어 있었다.

4. 전환기의 자유대학교

전쟁이 끝나자 자유대학교는 곧바로 문을 열어 정비작업을 서두르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대학교는 화란학계와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학회와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상황 등에 매우 기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1945년 총장 이취임식에서 총장에서 물러나던 오란여(J.Oranje)의 이임연설은 2차 대전 이후 자유대학교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¹⁷⁾ 오란여는, 앞으로도 자유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존립 권리가 있음을 옹호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자유대학교는 자신의 학문적 기여를 외부로 알리고 영향권을 넓히기 위해서도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벗어나야 한다. 국공립대학들도 이제 1880년 대학 개교 당시에 비해,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학문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을 그

17) J. Oranje의 연설은 W.J. Wieringa가 잘 요약해 주고 있다. Wieringa, 앞의 글, 22~24 참조.

때보다 지금은 모두가 거의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학교는 칼빈주의 원리에 근거한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을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더 균형있게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유대학교 특유의 교양교육으로 오란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도여베이트의 칼빈주의 철학이었다. 셋째로, 자유대학교가 작은 교파인 개혁신교회(G.K)와 관련된 교인들만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오란여는 우려를 표시한다. 그 대안으로 그는 개교협의 회원자격을 좀 더 넓혀 개신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문호를 좀 더 넓게 개방하여 외부와의 교류(다른 교회와 다른 대학)를 극복하자는 의도에서 한 제안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유대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대학과의 교수 및 강의의 상호교환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다.¹⁸⁾ 이것은 하나의 작은 변화의 조짐이었다.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세울 때 대학이 자리잡을 도시를 한 때 레이든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현대주의 사상 때문에 레이든대 교수와 학생들과 계속 접촉하는 것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 암스테르담을 선택하였다. 카이퍼가 우려했던 것은 이제 자유대학교 내부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한 하나의 반응방식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2차 대전 후의 자유대학교는 우선 규모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레이든이나 우트레흐트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이던 대학이 전후 갑자기 팽

18)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한 예는, 1963년, 당시 레이든대 정교수이던 반 퍼센(C.A. van Peursen)이 자유대학교 철학 특임교수로 취임한 것이다. 반 퍼센의 부임 이래 자유대학교 철학과는 좀 더 전문화, 세분화된 철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 퍼센의 영향에 대해서는 Klapwijk의 여러 글을 참조하라. J. Klapwijk, "Honderd jaar filosofie aan de Vrije Universiteit," in *Wetenschap en Rekenschap*, 566~570; 같은이, "Anthithesis and Common Grace," in: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Capita Selecta in the History of Christian Evaluation of Non-Christian Philosophy. Jacob Klapwijk, Sander Griffioen, Gerben Groenewoud (eds.) (Lanham/New York/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181~182.

창하게 된다. 1950년까지 5개 학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미 1948년 경제대학이 설치되면서 충족되었고 2년 뒤인 1950년에는 숙원 사업이던 의과대학이 설치된다(치과대도 곧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확장은 무엇보다도 1947년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줌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1968년부터 정부는 대학 재정을 100%로 책임지게 된다). 뒤따라서 사회과학대학이 설치되고 문과대학에서 철학이 따로 떨어져 나와 “중앙상호학부”(Centrale Interfaculteit)를 구성한다. 그리고 기존 단과대학도 더욱 세분화되었다(현재 자유대학교는 11개 단과대학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확장과 세분화로,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접근 방식이 대학에 공존하게 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개혁주의 원리”와 학문의 관계에 대한 재반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사회의식과 민주주의의 요구는 대학의 연구방향 설정과 행정체제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사회 전체의 세속화 과정의 가속화로 재학생들의 교회 배경도 급격하게 달라진다. 1950년까지만 해도 학생 중 80%는 개혁교회(G.K) 출신이었으나 1960~1년에는 이 숫자가 68.8%로, 1976~7에는 28.8%로 떨어진다. 화란 개혁교회(H.K) 출신은 1960~1년에 18.1%, 1976~7에는 18.0%로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카톨릭교회 출신은 1960~1년 3.6%, 1976~7년 18.0%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무종교는 1960~1년 5.7%, 1976~7년 32.3%로 급상승하게 된다. 개혁교회 출신이 줄어들고, 카톨릭과 무종교 출신의 학생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¹⁹⁾

이미 1949년 총장 연설에서 학생수의 증가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또 다시 6년 후 총장 연설에서, 학생수는 더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화란 대학은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염려는 사실상 현실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종교 배경에 따른 학생 구성비율은 결국 학교의 방향과 강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자유대학교의 정체

19) 이 통계 수치는 Wieringa 앞의 글 참조.

성에 대한 고민은 1971년 개정된 정관 전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개혁주의적 원리”나 도르트레흐트 총회에서 채택된 “세 신조”가 언급되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곧 칼빈주의적 원리가 학문 연구와 교육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적 바탕에 서서 학문과 교육을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하겠다. 자유대학교에 일어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0년대 다시 불붙기 시작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자유대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토의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크게 볼 때, 자유대학교는 1950년 말까지는 개혁주의 원리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먼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운영위원과 이사의 자격을 개혁교회 소속 회원으로 한정해 놓았던 조항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철폐되었다. 둘째로, 학부의 팽창과 세분화로 인한 각 학문간의 단절과 학문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 학부 상호간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는 교양 강의 (이른바 *studium generale*)가 해마다 개설되었다. 여기서 주로 세계관적 문제와 학문,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문제가 다루어졌다. 셋째로 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1952년부터 외국 학생들을 겨냥한 여름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외국 학생들을 불러들였고 기독교학문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유대학계간지”(Free University Quarterly)를 발간하여 자유대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기독교적 반성을 국외로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외국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

1950년대에 와서, “원리적인” 과목과 “비원리적인” 과목을 구별함으로써 학문과 “개혁주의 원리”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 구별에 따르면, “비원리적인” 과목은 기독교 신앙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도여베르트나 폴른호른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어떤 학문이라도 단순한 기술(技術)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는 개별학문의 전

제를 가려냈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개별학문 연구와 교육에 적용할 수 없다면, 개혁주의 원리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을 다루기 위해 1959년,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대표, 교수 전체가 모인 특별회의가 열린다. 몇몇 교수의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 회의는 결국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합의의 걸림돌은 결국, 학문 연구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5. 자유대학교 “기초”를 에워싼 토론

1960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자유대학교의 전환점이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안팎으로 끊이지 않았다. 변화된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세 가지 들 수 있다. 먼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60년 개정된 「대학교육법」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 이른바 “대학교육 분산 정책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해 자유대학교 내에 연구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었다. 당시 화란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학들을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연관지우고, 한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자유대학교는 대학의 지역화를 강조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기독교대학 교육의 위치와 방향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과제를 연구 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정부의 제안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모두 지역대학으로 한정시키고, “세계관”에 바탕한 대학인 네이메이혼 카톨릭대학과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은 지역화에서 제외시켜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으로 남겨두길 원했다.

이것을 전제로, 연구 위원회는 화란 내 다른 지역에 자유대학과 같은 다른 대학을 세우거나 분교를 세울 계획을 세워 보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의 단일 대학으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둘째로, 자유대학교를 계속 넓혀 갈 것인가 하는 물음도 다

루어진다. 결론은 양적 확장보다는 기존 학문 분야를 좀 더 보완, 개선, 심화 시킨다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대학교의 “특수한 성격” 혹은 “고유한 성격”이 손상받아서 안된다는 것이 다시 강조되었다. 셋째로 사회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아브라함 카이퍼 시절부터 자유대학교는 화란 사회 전체에 봉사하고 기여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 전통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회형태, 사회정의, 성문제, 대중매체 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학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고, 전통의 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축도 요청되며,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넷째로, 기독교 신앙과 대학의 기본 원리를 학생들에게 강요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비판적,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⁰⁾

60년대에 이르러, 자유대학교의 변화에 두번째로 중요한 계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성불가침으로 여겼던 대학 정관 전문 “기초” 조항을 검토하는, 이른바 “기초연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1965년). 이 위원회(운영위원 2인, 이사 2인, 각 학부 대표 교수 11인으로 구성)는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어떤 학문에도 전제와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학문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개별학문을 통해 접근될 수 밖에 없었다. “기초연구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사회와 대학운영위원회가 합의를 본 것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68년초 세번째 중요한 계기가 있게 된다. 그것은 자유대학

20) 화란 정부의 새로운 대학교육 정책과 자유대학교의 변모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 J. Wieringa의 앞의 글 29~30을 참조하라.

교의 미래에 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대학 안에서 가지는 안이 교수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모임에는 이제 교수, 이사,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강사와 조교, 직원 및 학생대표들도 참여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럽 전역에 일고 있던 대학 민주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타난 것은, 과거의 “개혁주의 원리”는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칼빈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학문이 구축될 수 없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었다.

발표자 중 한 사람이던 신학자 까의뜨르뜨(H.M. Kuitert)는 정관 전문에 있는 “개혁주의적 원리를 기초로 한다”는 구절은 자유대학교를 하나의 특정한 신앙고백에 한정된 대학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신앙고백이 필요한가? 특정한 신앙고백을 따르는 대학이 학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까의뜨르뜨는 하나의 신앙고백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와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유”대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카이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역설하였다. 기독교 신앙은 학문연구를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잡아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적인 노력이 과연 인간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하고,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전망을 보여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색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다른 발표자들(De Graay Fortman과 Lever)은 자유대학교가 설립되던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열거하면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자유대학교의 “고유한 성격”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들은, (1) 자유대학교는 이제 대규모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정부의 완전한 재정지원이 실현되었고, 또 캠퍼스를 한 곳에 조성하여 쉽게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약받았던 전문적인 연구에 이제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이전 세대들이 가졌던 학문의 기독교

교화 혹은 기독교적 학문의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의 “고유한 성격”을 계속 유지하되 모든 방면에 대해,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 전역을 향해, 특히 개발도상국을 향해서 자유대학교의 고유한 섬김의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²¹⁾

이와 같은 토론이 여러 차례 있던 뒤, 개교협 회원들의 강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학교 정관의 “기초”에 관한 조항이 결국 수정된다 (수정 문구는 위에서 이미 인용하였다). “기초” 조항의 개정은, 단지 당시 일어난 변화를 법규정면에서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는 일이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학과 학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한 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학문적, 재정적, 인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대학교는 칼빈주의 노선에 서 있는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지만, 이미 1961년부터 그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자이레, 남아공화국, 보츠아나, 레소토, 가나, 수리남, 베트남 등 제 3세계를 향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외국의 기독교 대학과의 관계도 전보다 넓히게 되었다. 칼빈 대학, 토론토의 기독교 학문 연구소, 남아의 포체프스트룸 대학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였다(포체프스트룸 대학과의 관계는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에 1974년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이후 보츠아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지에 있는 대학 등과 관계하게 되었다.)²²⁾

6. 맺음말

자유대학교는 대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74년 그것을 연구할 위원

21) W. J. Wieringa, 35~36 참조.

22) *Vraag en Uitleg*, Achtergrondinformatie over de Vereniging en de Vrije Universiteit(Amsterdam: Vrij Universiteit, 1979), 19~20.

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임시로 “목적 실현 연구모임”을 가동한다. 이 모임에 자유대학교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것이 확대되어 1980년에는 “반성센터”(Bezinningscentrum)가 되었다. 개교협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반성센터”는 전공 강의실에서 쉽게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세계관적 반성들, 새로운 사고와 조류에 관한 강의와 세미나,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주관한다. “반성센터”는 자유대학교의 세계관과 설립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과제는 19세기 후반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때는 구성원 상호간의 동질성이 있었고, 소규모의 대학이었고, 신앙에 대한 입장도 거의 동질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성원,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다원화된 상황이다. 개혁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의 배경도 이제 다양해 졌다. 그리고 더구나, 대학 행정체제는 민주화된 이래(1971년) 학생과 직원들이 모두 학교의 기본 방향과 노선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²³⁾ 다원주의 사회, 혹은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대학의 정체성 확인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자유대학교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꿈꾸었던 대로 거의 모든 분야를 갖춘 거대한 하나의 학문 “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이 그가 바라던 바로 그것이었던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러나 좋은 싫든, 자유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들여다 보아야 할 중요한 “거울”인 것만은 틀림없다. 대학과 사회, 대학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개별학문,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적”이길 원하는 대학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23) 1971년 이후 새로 조직된 대학평의회는 4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7인은 개교협 운영위원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33인은 교수, 직원, 학생 중에서 각각 14인, 8인 11인이 선출된다.

없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 고립과 분리 속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고립과 분리 속에 머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우도 역시 문제가 된다.